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17)(1/13/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18 장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잠시의 괴로움들을 초연히 감내함, 1-3 절

요 3:13 -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사 53:4 -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요 5:30 -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마 7:14 -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요 12:46 -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1. <그리스도> 아들이,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강림해서(요 3:13),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너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대신 짊어졌는데(사 53:4), 그것은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잠시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불평 없이 인내로써 감당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출생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괴로움과 슬픔을 겪어지지 않은 때가 없었고, 현세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내게는 늘 많이 부족하였다. 나에게 대하여 불평하는 말들을 자주 들어야 했고, 나를 모욕하고 욕하는 것을 온유함으로 인내하여야 할 때도 많았다. 은혜를 베풀고도 배은망덕함으로 돌려받았고, 이적들을 베풀고도 신성모독으로 몰렸으며, 진리를 가르치고도 욕을 먹었다.

2. <제자> 주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인내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요 5:30). 그러므로 가련하고 비천한 죄인일 뿐인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인내로써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현세에서의 삶은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살 만한 것이 되었고, 주의 모범과 주의 성도들이 걸어간 길들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고 견딜 만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의 문이 굳게 닫혀 있던 저 옛적의 구약 시대보다, 지금은 훨씬 더 풍성한 위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훨씬 적은 사람들이 천국을 찾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마 7:14), 천국으로 가는 길도 더욱 모호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때에는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 있던 사람들조차도 아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3. 주께서는 나를 포함한 모든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의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바르고 선한 길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아무리 천 번 만 번 감사를 드린다고 하여도,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신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는 거룩한 인내 가운데서 우리의 면류관인 주를 향하여 뚝뚝뚝 걸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 길로 걸어갈 엄두나 냈겠습니까? 만일 주의 빛나고 생생한 모범이 사람들의 눈 앞에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 길로 걸어가다가도 얼마 못가서 다시 되돌아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과 교훈들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냉랭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를 따르는 데 필요한 빛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요 12:46).

**말씀과 해설:**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갖가지 어려움들을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견디며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다 당하셨다. 주님은 끊임없이 억울한 비난과 모함을 당하셨으며,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천대와 살해의 위협이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며 묘사했다. 사 53:4-5 -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자신 때문이다. 주님은 나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낮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위로 받으며, 환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주님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건져 주시며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롬 8:31 -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지금도 기도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롬 8:34 -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롬 8:35, 37 -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과 용기와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을 삶을 살아야 한다. 아울러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순간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 4:13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잃지 않으셨던 인내, 사랑, 겸손, 섬김을 늘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히 12:3 -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요 13:1 -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본받으며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갈 6:9 -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붙잡고 삶의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2. 갖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 당하는 교우들에게 강력한 치유와 해결과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3.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세워 주신 선지동산(신학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께서 계획하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배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